

보문사 선사 7인 초청 대법회

한 순간 마음 놓치면 번뇌망상에 빠져



(오른손으로 주장자를 수평으로 높게 들어 보이며) 잘 보십시오. 잘 보셨지요?
(주장자로 법상을 내리쳐 '쿵' 하는 소리가 난 후) 잘 들으셨습니까?

주장자를 잘 보고 주장자 소리를 잘 들었으니 이 보고 듣는 가운데 알아 차렸다면 오늘 법문을 잘 들으신 겁니다. 제가 오늘 다른 스님들과 같이 똑같은 주장자를 들어 보이고, 소리를 내어 보였지만 특별한 뜻을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저 주장자를 보고, 소리를 듣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줄 아셔야 됩니다.

선 법문이라고 하면 사실 직접적으로 선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법문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실천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사 스님의 법문이나 큰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면 알 수 없는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깨달아 선의 경지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님들이, 실천해 보면 안다는 의미로 대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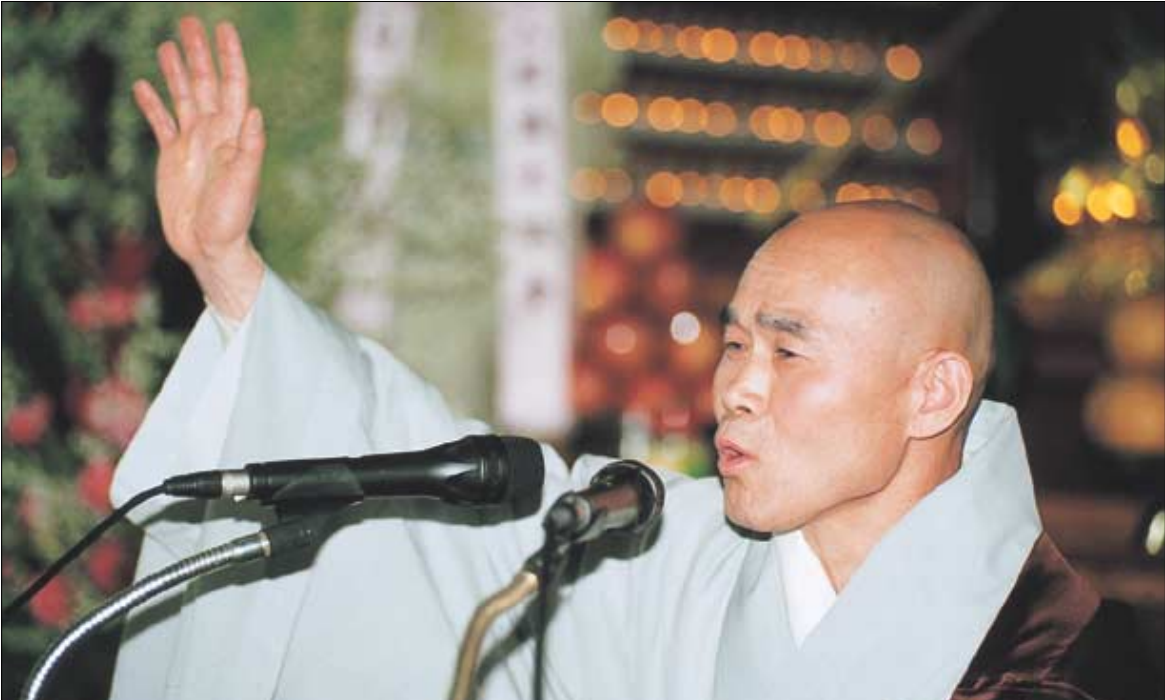
마음 깨닫는 것이 연기법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법문 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틀을 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경전은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고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중법문을 많이 다니지는 않았으나 아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주장자를 들어보이고 소리를 내는 행위에 대해 듣는 모습과 소리에 초점을 맞추어 보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전 주장자를 든 것을 보고 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무엇이 보고 무엇이 들었습니까?
바로 마음이 보고 마음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바로 알고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가 화두 참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 일오(一悟) 스님
1943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난 스님은 65년 월인 스님을 은사로 함양 상연사에서 출가했다. 71년 화엄사에서 도공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고 73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일오 스님은 77년 강진 만덕사, 92년 사천 구룡사에서 잠시 주지 소임을 맡았지만 출가 이후 후관 전국의 선방에서 정진에만 전념해 일반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좌계에서 '질구통 수좌'로 유명하다. 지난해부터 전북 부안 월명사 사성선원장을 맡아 후학 지도와 간화선정 진척에 앞장서고 있다.



일오 스님은 "현재심이 새롭게 살아 움직이는 법이 화두법"이라며 "참선수행을 게을리 하지말라"고 당부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때 과거·미래 잊고 지혜 눈 떠

<금강경>에 보면 '과거심(過去心)도 현재심(現在心)도 미래심(未來心)도 불가득(不可得)'이라고 했습니다. 왜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온 업장 때문에 이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이 업장을 소멸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업장을 소멸하는 것은 사실 마음을 깨닫는 법, 마음을 밝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가운데 다 알아 차렸다면 오늘 법문 잘 들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량겁(無量劫)을 살아오면서 쌓아 온 업장 때문에 이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이 업장을 소멸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업장을 소멸하는 것은 사실 마음을 깨닫는 법, 마음을 밝히는 법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오욕락의 성취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오욕락을 성취해야 된다고 믿는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탐욕이 생기고, 욕망 성취가 되지 않으면 불만족으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더불어 일어난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다보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모든 허물은 바로 여기서 생기고 업장도 두터워집니다. 업장 소멸의 방법은 많지만 '나'에서 벗어나야 할 때 진정한 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평안사천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은 바로 삼법인(三法印)입니다.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 열반적정(涅槃寂靜) 등 세가지 이치를

심도 현재심도 미래심도 불가득이라고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일어나고 없어지는 환나생 환나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을 생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마음이 일어나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마음이 사라지면 죽는 것이 나 타들었습니다. 이렇게 항상 변하기 때문에 무상하다 한 것입니다. 이 도리를 모르고 그냥 허무적인 무상, 무아를 해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이 모두가 연기의 이치인 셈이죠. 현상계가 무상하다는 것을 알고 안으로 한 생각이 일어나고 깨지는 이 마음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실체가 없이 순간순간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이치를 깨닫는다면 그것이 바로 연기법을 아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하다보면 잠시라도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는 삼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은 바로 과거

'나'에서 벗어날때 도리 깨쳐

심과 미래심이 끊어진 현재심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과거심은 이미 지나간 마음이고 미래심은 아직 오지 않은 마음이기엔 현재심만이 남아 있게 되는 상태입니다. 현재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심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주장자를 들어 보이고 소리를 냈을 때 보고 듣는 그것이 바로 현재심입니다. 보고 듣는 그 순간 드러난 마음이지요. 이 현재심에 집중하기 위해 수행법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수행법보다 화두 수행법이 좋다고 하는 것은 화두를 참구하다 보면 바로 이 현재심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두에 의심이 붙어 한 생각에 빠질 때 과거도 미래도 모두 끊어져 버립니다. 화두가 가장 잘 되는 순간이 바로 이 현재심을 가장 잘 다스리는 순간이고 현재심이 가장 온전하게 드러나는 상태인 셈이지요. 이때 지혜가 생겨납니다. 현재심이 새롭게 살아 움직이는 법이 화두법입니다. 그러나 실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수행을 직접 해서 그 뜻을 봐야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들이 왜 그리 공부 하라고 강조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조사 스님들이, 너의 본래 면목을 찾아라, 마음의 주인공을 찾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현실을 떠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인 참 주인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조사 스님들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무아라고 했습니다. 실체를 가지고 변함없이 그대로 존재하는 나라는 것은 없다는 뜻이지요. 무상, 무아인 줄 알고 현상계가 괴로운 것인지 알아야 여기에서 보리심을 내게 되고 연기의 이치를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을 확연히 드러내는 계승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잘 때 항상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다. 걸어갈 때 같이 걸어가고 앉을 때 같이 앉고, 말할 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한 기도 영험도량에 범비 오는

동해사 삼사순례

동해사 비 오는 곳

- 동해사에서 낙산사 10분 소요, 휴휴암 15분 소요, 불탑사 10분 소요
- 바닷가 방생지 5분 소요
- 대형주차장 완비

100일기도 접수안내

꼭 소원이 간절하신분 접수하여 한가지 소원이라도 이루어보세요.

◇ 기도시간 : 4:00시 ~ 5:30분
오전 10시 ~ 11시 20분, 오후 5시~6시
◇ 기도 비 : 10만원
(충남 331036-51-062531 동해사)

삼보전에 귀의하옵고 밤 낮없이 사리탑위에 범비가 내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해있는 동해사. 범비의 자비광명으로 화신하여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계산곳 동해사에 오셔서 순례도 하시고 마흔 두가지 중 어떤 소원도 이룰 수 있는 사십이 수주 진언의 기도를 하시고저 하는일 이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동해사 주지 혜명 합장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 033-672-2900

방생 집전스님이 필요한 불교단체는 주지스님 집전 가능함.

불교성지순례 (주)실크로드여행사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성지순례!!

성지순례는 전통있는 실크로드와 함께 최고의 순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특선 1	하룡베이 / 앙코르와트 6일	999,000원
●일정 : 인천-앙코르와트-하노이-하룡베이-인천		●출발일 : 5월 28일
특선 2	보현보살의 성지 아미산, 세계자연유산 구재구	112만원

몽골, 바이칼호수 8일(몽골 대초원과 러시아 바이칼호수) ▶출발일 : 6월 7일
▶일정 : 인천-울란바타르-이르쿠츠크-시베리아-바이칼호수-울란바타르-테를지-인천

파키스탄, 실크로드 탐방 19일 ▶출발일 : 6월 21일
불상의 탄생지 파키스탄의 간다라유적과 카라코람하이웨이 따라 피미르고원(총령)를 넘어 실크로드로-세계최장수 마을-훈자-쿠차 천불동 등 비경을 찾아 탐방하는 일정
▶일정 : 인천-라호르-택실라-페사워르-스워드-칠라스-길기트-훈자-키슈키르-쿠차-우루무치-톈황-서안-인천

중국불교 4대 명산 순례 *10명이상 출발 가능
▶지장보살의 성지 구화산 5일 (남경-구화산 지장성지-천화제일 황산-형주-영은사,서호-상해) 85만원
▶관음보살의 성지 보타산 5일 (상해-형주-영파-보타산-관음현신처 조율동,보제사,낙가산 등-상해) 79만원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6일 (조주선사의 백림선사 임제선사의 입제사, 오대산, 문강석굴 등) 95만원

미얀마 성지순례 6일 (미얀마 최고의 불교 유적지 순례) ▶출발일 : 4월 22일 149만원
▶일정 : 인천-양곤-바간(2000여개의 불탑-거대한 유적군)-만달레이-앙곤(세다곤대탑,까바에파고다-진신사리천전)-인천

티베트 성지순례 11일 ▶출발일 : 6월 3일
실크로드의 수많은 경엄으로 특색있는 티베트의 불교성지를 찾아서...
티베트 11일(티베트 라사에서 이탈리아)를 9주(만두까지) ▶일정 : 라사-포탈라궁-장제-시기체-라세-치가(에베레스트 등 히말라야 조반) 2정무-쿠티만두

수미산 순례 24일 ▶출발일 : 6월 4일, 7월 6일, 9월 3일
수미산 순례의 선구자 실크로드가 수미산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수미산 순례는 어렵고 그만큼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실크로드만의 노하우로 수미산 순례를 완벽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일오 스님 (월명암 사성선원장)



3월22일 서울 상도동 보문사에서 열린 '선사 7인 초청법회' 동참자들이 초청법사 일오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다.

같이 말하고 묵묵할 때도 항상 따라다닌다. 항상 따라 다니는 것이 우리 몸의 그림자 같다. 만약 부처가 간 곳을 알고자 한다면 바로 이 순간 말하고 듣는 요놈이다.

이 순간 바로 드러난 현재집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현재집만이 존재할 때 그것이 부처입니다. 본래 부처가 따로 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내 자신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가장 용맹한 사람입니다. 열불, 화두 참선 모두 좋습니다. 다만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과거로 끌려가고 미래를 걱정하게 됩니다. 건성만 사람도 마음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 마음이 찰나생, 찰나멸 하므로 한순간 놓치면 바로 번뇌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예의 주시하며 관찰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화두를 놓치지 말고 항상 자신을 잘 관찰하십시오. 이 도리를 아는 사람은 나의 집착에 빠지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항상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나를 이해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그때 진정한 마음으로 남을 돕는 보시의 마음이 생깁니다. 열심히 수행정진 하십시오.

정리=김두식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알림 식목일 연휴관계로 조제사-현대불교가 공동주최하는 '전국 선원장 초청 대법회'가 한 주 쉬었습니다. 위 법문은 3월 22일 서울 보문사 주최 '선사 7인 초청법회'에서 법문한 일오 스님의 설법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다음호부터는 예정대로 선원장법회 법문이 소개됩니다.

수행할때 음식 가려먹는 것이 좋아

현장에서 '묻고 답하기'

▲어떤 화두를 들어야 좋습니까?

-비심(非心), 비물(非物), 비불(非佛)이라고 했습니다. 화두를 분별하면 안됩니다. 즉, 어떤 화두가 좋고 어떤 화두가 덜 좋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스님에게 화두를 받으면 믿음을 갖고 들어야 합니다. 설사 화두 수행을 하다가 지옥에 가더라도 나는 후회가 없다는 정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떤 화두를 들든지 자신의 문제에 와 닿아야 합니다. 그래야 의심이 생기고 화두에 힘이 생깁니다. 화두를 믿고 의심을 내어 보세요.

▲화두를 듣다가 잘 안될 때는 화두를 바꾸어도 됩니까?

-화두 수행이 잘 안된다고 해서 혹시 다른 것은 없나 하면 화두 지리가 잡히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화두를 바꾸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망상만 일어날 뿐이었습니다. 화두 바꿀 생각 말고 열심히 의심하십시오.

▲화두를 타파하고 나면 또 다른 화두를 들어야 합니까?

-하나의 화두를 타파하면 더 이상 풀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수행하는데 있어 음식을 꼭 가려야 합니까?

-탁발을 행하는 남방불교에서는 신도들이 시주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시주하면 고기를

먹기도 하고 오신채도 먹습니다. 그러나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안 먹을 수 있다면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이 타락하면 괴도 타락하고 정신도 타락하게 됩니다. 한순간 한순간 화두에 전념해야 하는데 정신이 타락하면 화두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이면 가려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화두 들든지 자신의 문제에 와 닿아야 힘 생겨

▲화두를 듣다가 잘 안될 때는 화두를 바꾸어도 됩니까?

-화두 수행이 잘 안된다고 해서 혹시 다른 것은 없나 하면 화두 지리가 잡히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화두를 바꾸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9>



떠나도 즐기 않는 연못 '돈'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두 축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선 돈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어느 사회제도에서나 돈이 필요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선 돈이 없으면 문자 그대로 생존자체가 불가능하다. 돈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음식을 살 돈이 없어 며칠 굶주리다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 강도로 돌변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돈은 물질적인 사회에선 피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온종일 온갖 꾀를 일출 감내하는 것이다.

같은 수고를 하며 번 돈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준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처럼 보인다. 힘들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기꺼운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이 금전적인 보시를 하면 사람들이 존경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에만 몰두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돈을 모으는 재미에만 빠져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돈은 적절히 사용되어야

잘도 스스로 즐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심지어 부모, 형제, 처자까지도 즐겁게 하지 않는다. 종교 수행자에게도 보시하지 않으며 천상에 태어나기 위한 보시도 하지 않는다. 바르게 사용되지 않은 재산은 도둑에게 강탈 당하기도 하고 물이나 불의 재앙으로 순식간에 없게 되기도 하고 원하지 않은 상속자에게 빼앗기게 된다. 비유하면 깨끗하고 감미로운 연못의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다. 사람들이 연못의 물을 나르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 두면 무엇에도 소용이 없다.

연못의 물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더라도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낙엽이나 흙에 의해 연못은 더럽혀지고 메워지고 만다. 고인 물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반대로 사람들이 수시로 사용하면 연못의 물은 순환이 되어 항상 깨끗하다. 사람들은 그 연못에 대해 감사하며 잘 보호하므로 훼손당하는 일이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간직하고 남에게 주려고 하지 않는다. 남에게 주면 존 만류 손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사이가 불편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붓다는 재산이란 연못의 물과 같아서 여러 사

재산은 연못 물과 같아서 나누면 되돌아와 고인 물은 부패 ... "바르게 벌고 쓸 줄 알아야"

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인데 인생의 목적이 되어 버린 것이다. 가진 재산이 많이 있으면서도 남에게 베푸는 데 인색한 사람이 되고 만다. 보시를 베풀면 자신의 재산이 줄어들게 되거나 잃을까 하는 우려로 인색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 되고 만다. 이런 마음을 고쳐주는 경전이 있다. <집아환경>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붓다가 사위에게 머물고 있을 때 꼬살라의 국왕인 파세나다가 한낮에 붓다를 방문하였다. 붓다가 왕에게 어디를 갔다 왔느냐고 묻자 왕이 대답하였다. "거대한 재산을 가진 거부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에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모두 왕실에 거두어 들고 온 것입니다. 금은 보화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부는 쓸거가 섞인 죽을 먹고 헤어져 천 조각으로 깨어져 만든 옷을 걸치고 오래되어 잘 움직이지도 않는 수레를 타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간혹 보고 구두쇠라고 부른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지도 않고 심지어 자신을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고 돈만 모으고 있는 것이다.

붓다는 재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가르쳤다. "탐욕심이 많은 사람은 막대한 재산을 가

람과 바르게 나누어 사용하여도 즐기 않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나گران 나간만큼 다시 들어온다는 것이다. 베풀면 베풀 만큼 다시 들어온다는 가르침은 실연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재산을 바르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재산은 목숨을 걸고 추구해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주받아야 할 대상도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자가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정당하게 떼뭍혀 번 돈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과 사람을 속여 만든 재산이므로 깨끗하지 못하다. 그리고 또한 제대로 돈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식들에게 편법으로 물려주는 것에 관심이 있고 사회 전체의 복지를 위한 일에 돈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붓다는 재산이 있어야 자신의 욕심을 보존할 수 있고 중생들에게 보시할 수 있다고 금전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않았다. 재산이 이 한계를 넘어서 인간을 지배하게 되면 돈 때문에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돈은 선행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붓다의 가르침을 새겨 금전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될 것이다. 동국대 불교학과(경주)교수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건강도 지키는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물에도 최고!

금강의 밝은 지혜와 강한 힘으로 건강을

금강염주를 받아야 거실에 걸어놓으면 금강의 강한 기와 93%의 생육광선, 음이온등이 발산되어 현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 OA사무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차단하며 도심의 좋지 않은 공기 환경속에서 건강이 약해지는 스님 및 불자님들의 건강을 도와드립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며 피로회복, 신경안정, 스트레스해소, 혈액순환 등에 효과 있는 세계유일의 금강염주입니다. 밝은 지혜와 금강의 강한 빛이 발산하는 금강염주는 기도 정진시 일념무야 하면 부처님 가피로 고시준비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뜻밖에도 이루어지는 신비의 금강염주입니다.

2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해되는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사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만이 발견되며 세계 유일의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원효대사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만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해도 도망쳐서 역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금강염주는 점안식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 12단주와 108염주 1세트 가격 195,000원

*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생략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통기소로 전국 어디서나 받아 점안식용 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태형 B/D 406호)

사찰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견전지용 쏘 • 정사소롱 및 손잡이대

등 간 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가라주론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전구 (장품)

- ▶ 불계 고수전구, 인자전구
- ▶ 중류 : 3W, 5W, 10W
-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일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월라멘트기 (6매) 특 월라멘트로 빛이 열등이 밝고 열등 효과가 있다.

불계 견전지용 쏘

- ▶ 정사소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 (탑돌이, 방등) 등 바람이 불어도 깨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등에 적합합니다. (견전지 사용)

불계대원기업

귀일문의 (031) 986-0277-8 귀일문의 (02)2266-2634 (02)2263-2638
 귀일문의 (032) 582-6235-6 귀일문의 (01) 1630-7092
 http://www.bulje.co.kr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